

올 8월 역대급 무더위에 주택 전기사용량도 역대급

전기 총판매량 4.6% ↑...4인 가구 요금 평균 1만6700원 올라 상점 등 일반용 전기 사용도 2.6% 증가...산업용은 2%대 줄어

역대급 더위를 기록한 지난 8월 주택 전기 사용량이 4.6%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제는 지난 여름 이후 1킬로와트시(kWh) 당 30원 가까이 인상됐는데, 이에 각 세대가 작년보다 약 25% 오른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력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9377기가와트시(GWh)로 작년 같은 달보다 4.6% 늘었다.

8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을 통틀어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올해 8월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33kWh로 작년 8월의 325kWh보다 2.5% 증가했다. 총 전력 사용량이 4.6% 늘었는데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이

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가구 수가 증가(2760여만→2810여만)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작년 8월 427kWh의 전기를 쓴 평균 4인 가구라면 6만6690원의 전기요금을 냈지만, 올해는 438kWh의 전기를 써 약 25% 오른 8만3390원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량 증가율보다 요금 인상이 더 높은 것은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작년 여름 이후 전기요금에 세 차례에 걸쳐 1kWh당 총 28.5원 인상했기 때문이다.

4인 가구가 작년과 같은 427kWh를 썼더라도 요금 인상 영향만으로도 올해 8월 전기요금이 8만 530원으로 20.8% 올랐다.

상점 등 상업 시설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전기 판매량도 소폭 증가해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소상공

인 등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8월 일반용 전기 판매량은 1만3102GWh로 작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용 전기 판매량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 사용량은 날씨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11일로 역대급 여름 더위가 찾아왔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다. 8월 서울의 평균 기온은 27.2도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업계에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가정용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그나마 5% 이내에서 묶인 것에는 올해 대대적으로 전개된 가정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 가 어느 정도 효과를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여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각 가정의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칫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에너지를 예년 대비 적게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에너지 절약 유도에 정책 역

량을 집중했다.

한전에 따르면 8월 69만9000세대가 에너지 캐시백 신청을 한 가운데 43.9%인 30만6000세대가 실제 절감에 성공해 총 20억7000만원의 캐시백을 받았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 감소 등 경기 부진의 영향 속에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2만4703GWh로 작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다. 추가철 영향 등으로 8월 전력 판매량은 전월보다도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부진 속에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 전기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실물 경기 활력의 척도로 여겨진다.

한편, 8월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는 각각 149.1원, 166.0원으로 1kWh당 차익은 16.9원이었다.

이로써 한전의 전기 판매 단가에서 전기 구입 단가를 뺀 차익은 지난 5월부터 넉 달째 플러스를 기록해 장기간 이어진 역마진 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

되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여기에는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다 파는 금액만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한전이 전기를 각 고객에게 공급할 때 쓰는 원가에는 전기 구입비 외에도 송·변전 시설 투자비, 인건비 등 경상비, 추가 투자를 위한 적정 이윤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한전은 1kWh당 전기 판매 단가가 전기 구입 단가보다 최소 20원 이상 높아져야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세부 요인을 제외해도 올해 1~8월 누적 기준 1kWh당 전기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51.3원이다. 여전히 한전의 역마진 구조는 깨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연합뉴스



“K-푸드 세계로” 지난 14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스카이라이프에서 열린 ‘K-Food Nation’에 참가한 ‘K-푸드’ 서포터즈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올해 제3기를 맞이한 ‘K-푸드 서포터즈’는 현지 인플루언서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전역에 한국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aT 제공>

농협은행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직장 내 성희롱·갑질 등 4년간 6대 법인 소속 338명 징계

최근 4년간 농협 6개 법인 징계 대상자 70% 이상이 농협은행 임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징계 대상자들은 40% 가량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농협 6대 법인 소속 임직원은 3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농협은행 임직원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농협경제지주(43명) ▲농협중앙회(36명) ▲농협순해보험(11명) ▲농협생명(7명) ▲농협금융지주(4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농협 6대 법인의 임직원 징계 결과, 해임 또는 파면 처리된 임직원은 총 102명이었는데, 이 중 농협은행 임직원이 94명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징계 사유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39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 내 갑질(19명)이었다. 이 밖에 근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 시재금 횡령, 고객 현금 절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특히, 징계 임직원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은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간부, 유흥주점서 법카로 혈세 ping

과기정통위 국감...최근 5년간 징계 직원 18명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고위 직원이 유흥주점에서 법카로 3000만원 넘는 돈을 결제했다가 적발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이었던 2급 임직원 A씨는 올해 3월, 유흥주점과 소풍몰 등에서 7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3304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유흥주점에서 총 14회에 걸쳐 2838만원을 결제했다. 또 소풍몰에서 5차례에 걸쳐 147만원, 음식점에서 103만원(17회)을 사용했다.

진흥원은 지난 4월 A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난 6월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파면 조치했다.

나주경찰서는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

고, 검찰은 광주지방법원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진흥원 3급 직원 B씨는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행위로 정직 처분을 당하는 등 지난 5년간 진흥원에서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ping 쓰는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며 “직원 복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 사업 모색

직원총회...정책 혁신 방안 논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현성)은 ‘다 그래를 바꾸자!’를 주제로 지난 13일 ‘제1회 직원총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날 3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광주민선 8기 정책이 발맞춰 재단 발전을 위한 정책적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점차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여건과 대립적인 노정관계 속에 경영관리부, 기업지원부, 소상공인지원부, 일자리사업부, 상생일자리사업부, 노사동반성장부, 정책연구부가 머리를 맞대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혁신 사업을 모색했다.

또 직원총회 개최와 함께 새롭게 창설된 ‘퍼스트 펭귄 어워드’는 차가운 남극의 바다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처럼 도전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타 직원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여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분야는 기획(문서작성), 혁신(조직문화 개선), 협업(이해관계자와의 협업) 3개 부문으로, 동료 추천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직원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 시상했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공의 수요혁신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단이 경제 일자리 솔루션 그룹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해외 E커머스 시장 포

로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수자원공사, 무안 상수도 정비 상황 공유



‘맑은 물 네트워크’ 회의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단장 이창민)은 지난 13일 ‘무안 맑은 물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무안 맑은 물 네트워크’는 무안군 지방상수도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무안군 상수도사업소와 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 무안군 긴급복구업체 등 사업 관련 민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지방

상수도 상생·협력 협의체다.

회의에서 전남지역협력단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관련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무안군과 긴급복구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창민 전남지역협력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건설협-건설관리학회 공동 협력 협약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13일 (사)한국건설관리학회 호남지회와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 개발과 정보교류 및 자문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기술·신공법,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등 연구개발, 건설현장 시공품질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활동, 지역사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노력 및 기회제공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건설산업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회와 학회 간 원활한 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도복권 (제108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18	31	37	42	43	4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978,522,167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6,554,219	79
3	5개 숫자일치				1,581,517	2,825
4	4개 숫자일치				50,000	138,575
5	3개 숫자일치				5,000	2,338,390